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정각 이뤄야 고락에 매이지 않겠죠”

초의스님이 금강산을 유람할 때 아낌없는 후원을 보낸 인물이 추사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최근 발굴된 <추상운타첩>에는 지금까지 소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추사의 편지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의미가 크다 하겠는데, 이 책 속에는 두 편의 편지를 한 면에 수록해 두었다. 좌편의 해서체로 쓴 편지는 <<완당전집>> <여초의> 10신과 같은 내용이고, 오른 쪽에 초서체로 옮겨 쓴 것이 처음 소개되는 편지이다. 두 편의 편지 중, 우선 <여초의> 10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추상운타첩>의 추사 편지. 초서체는 처음 소개되는 편지다.

昨因季歸 略聞聲信 即又獲見梵槭 種種慰勞 第瓶鉢栖皇客惱可悶 至於明日金剛之行 遂不見我而去耶 仲之長川行 亦非明日可以經發者 且暫收拾 蹊蹻靜俟數日 亦為休德之方便也 慈納殘糧 豈可浪費 亦當裁處 放下着不式 <<여초의> 10신

어제 막내아우가 돌아왔기 때문에 대강 소식을 들었는데 또다시 그대의 편지를 받으니 여러 가지로 공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위안이 되고 후련합니다. 다만 그대가 떠도는 객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안스럽습니다. 내일이 되면 금강산으로 떠나는데 결국 나를 보지 않고 떠나시렵니까. 仲弟가 長川에 가는 일도 내일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잠시 수습하여 조금만 완성이 안정되기를 몇 일간 기다리는 것처럼 하면 피곤함을 푸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慧庵 스님이 남긴 양식을 어찌 낭비할 수 있었습니까. 또한 재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학하시길, 이만 줄입니다.

過境不必提現境 亦復苦甚 至於得成正覺 不在於過境現境之苦樂也 師尚以是為緣業相因耶 好覺噴案也 淨聖小照入送如何 當精攀兩本 一留一呈 且為目下銷遣 即師之賜也 腕力如此橫連 不式(새

로 발굴된 편지) 과거의 현상이 현재의 대상이 이끌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시 고통이 심합니다. 정각을 성취함에 이르러야 과거와 현재의 현상에 따른 고락에 매이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대는 이것이 인연의 업이 서로 작용하는 것이라 여기십니까. 좋이 한번 웃을 만합니다. 관세음보살도는 이리 보내시는 것이 어떻지요. 정성을 다해 묘사한 관세음보살도 2본 중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보내십시오. 바로 지금 보낸 것은 (내가)그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팔의 힘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이만...

금강산을 유람하기 위한 초의의 저간의 사정이 그리 순조로웠던 것은 아닌 듯. 이에 마음이 쓰인 추사였다. 그가 막내아우 김상희(1794~1861)를 통해 초의의 소식을 들었고, 또 초의의 편지가 당도한 후에야 '여러 가지로 공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위안이 되고 후련하다'고 그의 속내를 토로

한 셈이다. 떠도는 객의 신세였던 초의의 고통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던 추사였으니 내일이면 떠나는 초의를 위해 하루라도 쉬었다 가기를 바란 것이다. 그의 이런 벗을 위한 배려는 '전라도 장수지방으로 출발하는 중제(仲弟) 김명희(1788~1857)도 내일 급히 출발해야하는 것은 아니니'라는 행간에 오롯이 배어난다. 신실한 우의는 진정 이런 것인가. 실로 닳고 싶은 옛 사람들의 마음씀씀이다.

두 편지에 낱짜를 기록하지 않아 추사가 말하는 내일이 언제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초의가 금강산 유람을 떠난 것이 1838년 봄이므로, 이 해 봄 어느 날일지라. 특히 추사가 언급하고 있는 과경(過境)과 현경(現境), 다시 말해 지난 과거의 현상과 현재의 현상이 연기에 의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의 인식에 의한 부침으로, 고(苦)가 따른다는 것이다.

경(境)은 곧 감각작용을 일으키는 대상, 혹은 그런 현상을 이른 말이다. 정각을 이루어야 육경의 고락(苦樂)에 매이지 않는다는 추사의 정의는 그의 불교관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그가 '그대는 오히려 이것이 인연의 업이 서로 작용하는 것이라 여기느냐'라는 반문은 희연인가. 아니면 동의를 요구하는 말인가. '좋은 한번 웃을 만하다'는 통편(通辯) 뒤에 숨겨진 본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초의가 그린 관세음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교유에 핵심 축이 불교였다. 그것을 드러낸 대목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생명나눔 · 포교

종무행정의 '달인'

일면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은 직함이 여러 개다. 현재는 조계종 호계원장, 광동학원 이사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이전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조계종 군종교구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직함만 여러 개일 뿐일까. 일면 스님은 직책만 말으면 '울인'해 확실한 성과를 냈다.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있을 때는 4년간 최선을 다해 군포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군부당 46개를 중창불사하고 14개를 신축했다. 3년 동안에 16만여 명 군장병에게 수계를 내렸다. 또한 신홍사, 안국선원, 한마음선원, 대한불교진흥원 등을 통해 73억여 원의 군포교기금도 확보했다.

광동학원 이사장직을 맡을 때는 18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고 교내에 학교 설립자 윤허 스님 동상을 세워 불교 건학 이념을 분명히 했다. 또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던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맡아 10억 원을 들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장기기증확산운동에 진력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재직시에는 승가고시를 제정해 승가교육의 기틀을 세웠다. 현재는 호계원장으로서는 중대한정을 위한 승단의 범계행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스님은 주어진 일에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포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궁급해졌다. 스님의 크나큰 원력과 자비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 일면 스님을 찾았다.

일면 스님은 늘 웃는 얼굴이다. 경주가 고향인 일면 스님은 13살 때인 1959년에 출가했다. 약병 높은 사라호 태풍이 몰아친 해이다.

음력 8월 14일 추석전날. 학교에 갔다 돌아온 13살 소년은 형산강에 마을의 집들이 떠나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아야만 했다. 폐허가 된 마을에 한 스님이 걸망을 지고 탁발을 다니고 있었다. 탁발승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소년은 마음이 화끈한 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린 소년의 마음을 눈치챈는지 탁발승은 "너나 따라가자"고 했다. 소년은 책보를 마루에 던져놓고 스님을 따라 집을 나왔다.

일면 스님은 "돌아 볼 것도 없이 사문의 팔자였다"고 회고했다. 소년은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절에서 잠시 머물렀다. 마당을 쓸면서 법당에서 들리는 스님의 천수경 염불을 하나하나 받아 적어 외었다. 그러다 해인사로 옮겼다. "스님이 되겠다"고 하니 문중들은 어리다고 받아주질 않으려 했다. 그렇게 일주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승낙을 받고 엄격한 수행승으로 소문난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밭도 짓고 국도 끓였다. 심부름도 거들었다. 장작을 태우기 위해 불쏘시개를 구해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밤에는 혼자 울기도 했다.

은사 명허 스님의 발명은 '호랑이'였다. 하루는 일면 스님이 수건과 내의 등을 세탁하면서 마지막으로 행군물을 버리고 있었는데 명허 스님이 또 꾸짖었다. "놔둬다가 걸레를 빨 때 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 만큼 은사 스님은 철저했고, 모든 것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 스승의 가르침을 오롯이 새긴 일면 스님은 지금까지도 양말과 속옷이 해져도 다시 기워 입는다.

초등학교 졸업장 없이 어린나이에 절에 들어온 일면 스님은 교복 입을 학생들을 볼 때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고 커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평생 동안 화두정진을 했던 명허 스님은 일면 스님에게 "선방에 가서 도인이 돼 불교를 일으켜 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일면 스님은 당돌하게 "스님, 저는 복자·행정의 도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제자의 고집에 스승은 일면(日面)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서는 말했다. "네가 앞으로 중노릇을 잘하면 중단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만약 공부를 못하면 불교를 망칠놈이 된다. 잘 하거라."

명허 스님은 "절대 비석을 세우지 말 것"을 당부하고 1971년 해인사 흥제암에서 임직했다. 일면 스님이 군복부 중일 때였다. 일면 스님은 "우리 스님은 잘못하면 언제나 회초리를 들어 야단을 지셨다. 은사 스님

덕분에 장난 많고 덜렁덜렁했던 성격을 잡을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제대 후 일면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만학도로 동국대에 입학했다. 학생 때는 돈이 너무 없어 구운 감자와 번데기를 팔고 현직생애 책을 팔면서 학비를 마련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다시 해인사로 돌아가 공양주를 자처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놈이 대학교도 졸업했잖습니까. 그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자칫하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을 수도 있는데 부처님 만나 하고 싶은 공부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 해인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일면 스님은 눈썹까지 밀고 공양주 소임을 살았다. 정성 들여 밥을 짓고, 까마득한 후배 스님들의 고무신도 몰래 닦아 놓았다. 그렇게 묵은 숙 정진을 하며 날마다 감사기도를 드렸다.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칠 큰 그릇이 되고 싶다"고 발원했다. 이후 삶의 변화가 왔다. 다른 사람들이 스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인정해주시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일면 스님은 수행자로서 살아야 할 신념을 확고히 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은 권력이나 돈, 명예가 아닙니다. 자신의 확고

“중노릇 잘하면 중단의 얼굴 되고 잘못하면 불교 망친다” 은사스님 당부

교육원장 · 군종교구장 · 광동학원 이사장 역임하며 주어진 일에 '울인'

“뇌사자 장기받고 다시 태어났으니 생명나눔은 평생해야할 바라밀 정진”

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신념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지녀야 할 신념이 행자 시절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신념을 행자 때 세우지 않고 행자 시절을 적당히 보낸 사람치고 중노릇 시원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질에 맞춰 울을 공부해 울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복지사업 등 포교를 할 것인가 등의 선택이 행자시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뒤 선방에서 지낼 때였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故 성수 스님이 일면 스님을 불러 조계사에서 총무 소임을 보라고 한 것.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총무원 사회복지부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조계종 교육원장 등 주요직책을 두루 거쳤다.

스님은 '할 수 없다' '안된다'라는 말을 싫어하기 보다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다 죽는 놈은 없다" 이게 제 신념입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잖아요. 후배들에게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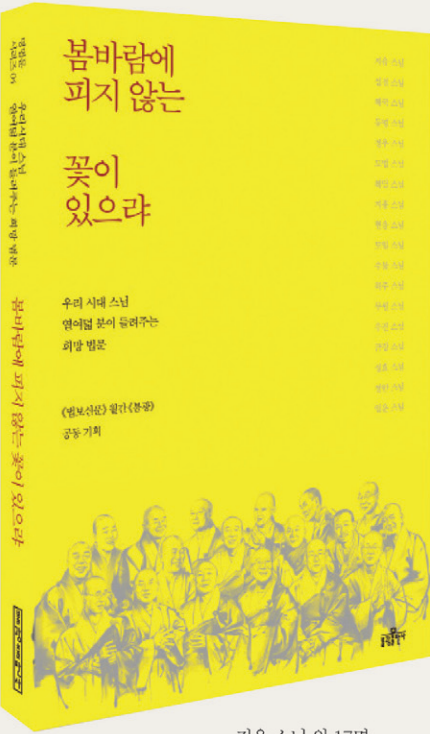
일면 스님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의사로부터 간경화 진단을 받은 것. 1년에 16차례 입 · 퇴원을 할 정도로 간이 좋지 않았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말기암으로 악화됐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고통이 더 컸다. 우울증이었던 것이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았습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했지만 40여 년을 중 생활을 한 나로서도 이 고통을 견뎌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불을 덮고 평평 울기도 했어요."

일면 스님은 빨리 몸을 벗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극

열여덟 분 스님이 마음에 던지는 큰 울림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다음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명법문 시리즈04

우리 시대 스님

열여덟 분이 들려주는

희망 법문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라



지유 스님 외 17명 184쪽 11,000원

가슴이 부르는 만남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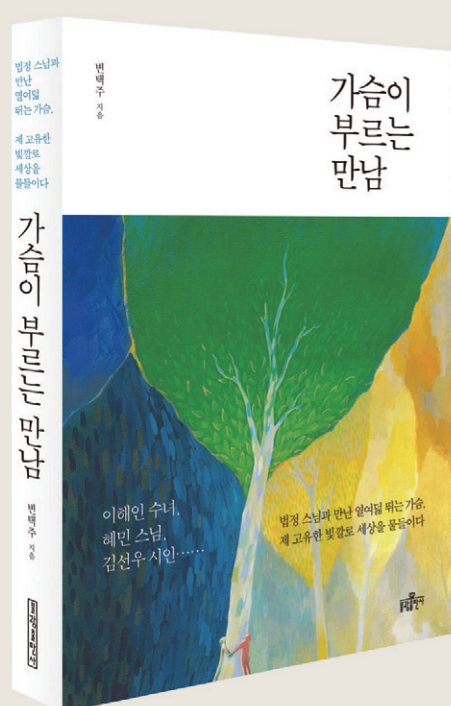
이해인 수녀, 해민 스님, 김선우 시인.....

법정 스님과 만난 열여덟 뛰는 가슴, 제 고유한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다

“그 사람 일생이 내게 오는 건 이 순간뿐인데 놓치고 후회 말고 잘해 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쁘니까 보여 줄 수 있을 때 가까이 보여 드리지.' 하는 마음이에요.” - 이해인 수녀

“여행자가 지닌 몇 권 되지 않는 책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책이 법정 스님 책이에요. 책에서만 스님을 뵈고 『무소유』 같은 책을 자기 삶에 특별한 표정처럼 늘 가지고 다녀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나게 돼요.” - 김선우 시인

“아무리 좋은 말이나 관심도 내가 평가받다는 느낌이 들면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비취주세요. 따뜻하게. 그게 사랑이에요.” - 해민 스님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태주 지음 1352쪽 115,000원



1964년 자운 스님을 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일면 스님



초대 군종교구장을 지낸 일면 스님은 형식과 위치를 따지지 않고 찾아주는 곳,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일면 스님은 ... 194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해인사에서 명허(明虛)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4년 해인사에서 자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7년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8년 해인강원을 마치고 동국대 종비생으로 입학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중앙총회의원,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교육원장, 초대 군중교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호계원장, 광동학원 이사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사진=박재원 기자

단적인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때 한 생각을 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였다. 그러다 갑자기 한 뇌사자의 장기기증 덕분에 스님은 살아날 수 있었다.

20시간의 수술, 3일간의 혼수상태. 생사 갈림길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한 생각이 스쳐갔다. '한강 한 번 더 보러, 한 번 더 사는구나. 결국 생사란 이런 것이구나.' 벌써 13년 전 일이다.

"선재(스님은 뇌사자의 이름을 '선재'라 불렀다.)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어진 인생 사사로운 이익 쟁겨 뭐하겠습니까. 부처님 은혜 값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 후 스님은 지금까지 복지·행정의 도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왔다.

군중교구장이던 시절에는 총무원이 군중교구에 지원하는 금액의 10배인 25억을 화주했다. 분규 속에 있던 광동학원 이사장직을 자처해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고 그 지역학생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던 광동고를 명문고로 탈바꿈시켰다.

봉선사 주지 때는 사찰 재정을 공개해 신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끌어내고 사중 재정을 튼튼히 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동문회장 시절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동문회사무실도 갖췄다. 또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이사장직을 맡고있는 최근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각각 3만 명에 이르는 쾌거를 이룩했다. 형식과 위치를 따지지 않고 찾아주는 곳,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스님의 적극성이 이뤄낸 결과들이다.

최근 호계원장으로 임명된 일면 스님은 원칙적인 판결로 호계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평소 제 자신에게는 서릿발같이 대했지만 타인에게는 늘 화합과 조정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호계원장이 된 이상 유연하면서도 서릿발 같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며 "종단의 화합을 깨트리거나 계획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호계원의 역사가 꽤 되었음에도 이렇다할 양형기존이나 판례집이 없는 상태다.

이내온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각각 3만 명에 이르는 쾌거를 거뒀다. 생명나눔 홍보대사 김병조(오른쪽에서 두 번째) 씨와 국약진흥 송소희(오른쪽)양도 스님을 돕고 있다.

전법일기

은혜에 감사... '나홀로 약속' 3가지

잊지 못하는 인연의 은혜

인생이란 다양한 많은 인연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와 형제 등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근본적인 인연이 있고 또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만나고 만드느 각기 다양하고 특별한 인연들이 있다.

불교와 관련하여 가슴에 품은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첫 번째가 불교학생회이다. 학생법회를 통해 스님의 법문을 만나고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학교의 다양한 환경의 많은 친구 및 선후배들을 만나고 사귀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출가의 마음을 다지게 된 것도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고교시절 불교학생회의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출가의 인연을 맺은 수덕사이다. 총림대중의 원용살림을 통해서 중노릇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고 존경하는 은사스님과 좋은 도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수덕사에서 얻은 초발심의 넘치는 신심과 기쁨이 평생의 출가생활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 되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하다.

세 번째는 해인사승가대학시절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달간 도시포교당 생활에 힘들어 할 때, 해인사승가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종정이며 방장이신 성철큰스님과 부방장 혜암스님 등 거목 같은 원로대덕 스님들께서 산중을 지키고 계셨고, 한국불교의 가장 대표도량으로 그 대중의 연연함과 원용살림으로 우리불교의 보루가 되었던 곳이다. 큰 대중 속에서 출가인의 거칠고 뾰족한 부분을 쪼고 갈아내는 탁마(琢磨)의 시간이었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담담하게 해낼 수 있는 뿌리 깊은 힘을 기르고 얻은 시간이었다. 오랜 샘물같이 쉽 없이 솟아나는 정진심과 원력을 품을 수 있었다.



그림·박구원

불교학생회·청소년 지도법사 소임
탁마도량 해인사 소임은 어려울 듯
출가본사 수덕사 후배지도로 보답


출가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에 대해 늘 은혜를 품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 은혜값음을 위해 속으로 마음먹고 약속한 일이 있었다. 먼저 1년 정도는 반드시 내가 성장했던 불교학생회의 법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덕사에서 느끼고 배웠던 초발심의 은혜를 후배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끝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2의 본사로 생각하는 해인사에서 소임을 살아주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수덕사에서는 4년여 소임을 보면서 200명에 가까운 행자들에게 초발심자경문과 염불의식을 가르쳐 계를 받게 하였다. 또 수덕사승가대학과 교구신도회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은혜는 보답하지 않았나 싶다. 해인사 소임은 은혜를 입은 스님들이 이미 본사주지의 연배를 넘어가면서 가능성이 희박해 졌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학생회 법사의 소임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이를 때까지는 평생 마음에 품어야 할 것 같다.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꼭 법회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근래 영영 이 꿈을 이루지 못할까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근래 사찰의 학생법회와 청년법회가 급격하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수년 전 광운대학교 학생회에 법회를 봐주었는데 한 학기가 지난 뒤에는 더 이상 법회를 볼 수가 없었다. 법회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종단의 이런저런 소임으로 법회에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하지만 언제고 해야 할 본분사는 법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들과 초발심자에 대한 법회와 지도이다. 내가 받고 얻었던 그 기쁨과 감사함을 다 전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받기 협의회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추대
(중사, 대중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733-5671